윤석열, 계엄부터 탄핵까지 헌정사 각종 기록 쏟아냈다

최장기간 111일만에 탄핵 인용
교정시설 구금 역대 최초 대통령
6시간 계엄령 세계적 최단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역대 최장 탄핵 심리 기간을 거쳐 파면되면서 '헌정사 최초' 기록을 갈아치웠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탄핵소추가 가결된 역대 대통령들 중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111일)이 걸린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다. 변론 종료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38일)도 역대 최장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기록을 연일 경신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체포당했다.

재임 중 출국금지를 당하고 국내 교정시설에 구금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도,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에 출석(총 11차례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한 것, 재임 중 구속취소돼 석방된 것,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 모두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탄핵 과정에서도 최초 기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과 재임 중 두 번 이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최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돼 권한대행 체제를 두 번 맞이한 것도 유례 없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은 세계적으로 최단 기간(6시간) 동안 선포된 계엄령으로 역사에 남았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계엄을 해제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세운 '최초' 기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초의 서울대 법대 및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가장 적은 득표율 차(0.73%p)로 당선된 대통령이자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1639만 4815표)이기도 하다.

대통령 업무 차원에서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25회)한 대통령으로 남았다.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노태우(7회)씨보다 3배 이상 많은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다.

헌정사 전체로 따지더라도 이승만(45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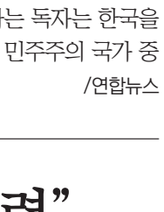
현재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된 건수는 24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승만(14건)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 헌정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폐기시킨 대통령이 됐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청와대를 떠나 새 집무실을 차리고 대통령 관저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첫 서울 출신 대통령,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도 남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계엄 해제 선언
7일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4일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16일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2025년 1월 14일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불출석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첫 출석 (이후 9차 제외 11차까지 출석)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19일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윤·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3월 8일	윤석방
4월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선고. 대통령, 직위 상실**



'지켰다 민주주의! 고맙다 광주정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난 4일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외벽에 '지켰다 민주주의! 고맙다 광주정신'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부럽다"…외신 독자들 '민주주의 수호' 탄성

미국인들 "우리 대통령도 감옥에…"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들 존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유력 글로벌 매체들을 통해 접한 일부 세계인들은 한국 상황에 부러움을 드러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세계 섹션의 주요 기사로 다뤘다. 여기에는 "한국이 부럽다. 우리도 우리 대통령직에 있는 중범죄자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달렸다.

조너선 창으로 표기된 이 온라인 독자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과 관련한 기업 회계조작 때문에 중범죄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미국인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뉘앙스의 댓글도 눈에 띄었다.

A 조갤러커라는 독자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때 자유 국가를 위해 맞서 싸웠던 독재자가 되고 있는 점이 우습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 행보를 지칭하는 듯 M 모리스라는 독자는 "권력을 남용하는 데 책임을 묻는다는 걸 상상해보라"는 글을 썼다.

독자 J 모리시는 "우리가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시장이 폭삭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동맹국들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존중했을 것이며 우리는 경기침체로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동맹국들을 경시하는 가운데 전날 세계 각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 경제가 위기에 몰린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다른 글로벌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P) 기사에도 비슷한 댓글이 목격됐다.

독자 블루 엘사는 "민주주의를 축하한다"며 "국민이 권력에 진실을 말했다"고 썼다.

다른 독자 멜멜은 "포기하지 않는 한국 국민과 옳을 일을 해낸 헌법재판소에 축하를 보낸다"는 댓글을 달았다. TV 크리틱이라는 독자는 한국을 들어 "미국보다 더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칭했다. /연합뉴스

미 "한국 헌재 결정 존중"…일 "어떤 정권 들어서도 협력"

외신들 헌재 결정 긴급 타전

미국 국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문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서면 답변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양국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긴밀한 협력의 미래(future of close cooperation)를 기대한다"라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한일 협력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서 질문을 받고 "나도 조금 전에 정보를 받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한일 협력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한일 관계 영향을 질문 받고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현재의 전략환경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사이에서 계속해 의사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와 양국 수교 60주년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생각이라고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양국이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에 조인한 1965년 6월 22일 전후로 열릴 행사나 올해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른 한일 관계 영향을 질문받고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한일 협력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